

5/6

2014

THE ART MAGAZINE
MISOOLSIDAE

미술포럼
MISOOLSIDAE

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59

SUK CHUL-JOO

Lee Kyu-Sun, Lee In-Seob

Park Chul, Shin Jong-Shi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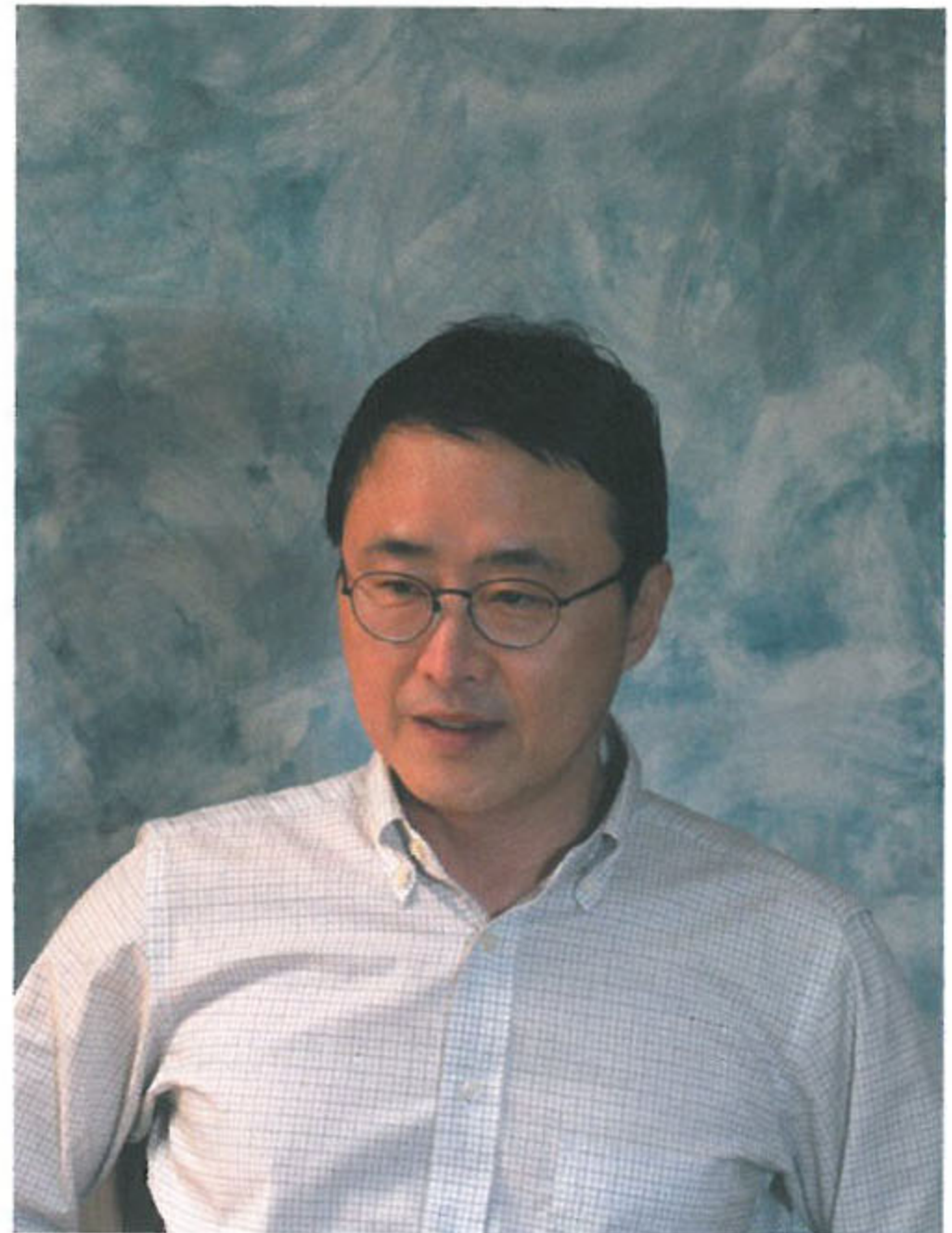


9 771975 862603 05
ISSN 1975-8626

김홍석전

2014. 4. 10 - 5. 11 국제갤러리 2관

2011년부터 시작된 <사람 객관적(People Objective)> 프로젝트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. 참고로 <사람 객관적(People Objective)>은 지난해 플라토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비평가 3인이 참여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포함한 퍼포먼스와 이전 아트선재센터에서 소개된 다섯 명의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본인들이 전달받은 미완의 작품의 설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였다. (문의: 02-735-8449)



◀ MOP-131014 걸레질-131014 · urethane paint on wood · 121×121cm · 2013 ▶ 김홍석

출품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연작으로서 2011년부터 시작된 <사람 객관적(People Objective)> 프로젝트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. 참고로 <사람 객관적(People Objective)>은 지난해 플라토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비평가 3인이 참여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포함한 퍼포먼스와 이전 아트선재센터에서 소개된 다섯 명의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본인들이 전달받은 미완의 작품의 설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였다.

이 작품 제목이 지칭하는 “사람”이라는 대상은 배우, 도슨트, 비평가,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에 이르는 인물들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형의 대상일지 모르나 작가 김홍석에게는 일상이자

삶의 일부와도 같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.

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<사람 객관적(People Objective)> 프로젝트는 <시간당예술(Hourly Art)>란 제목으로 노동집약적인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작품결과의 미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조건적으로 작가의 단순한 지시에 따른 단순한 노동으로 귀결되는 각기 다른 형태와 접근의 작품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관계의 지점, 곧 작가의 의도와 이를 지시 받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게 한다.

그 예로 전시 주요 참여작품 중 하나인 걸레질 회화연작 <MOP-131014 걸레질-131014>을 살펴보자면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정시간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 걸레질을 통해 닦아낸 행위의 결과이다.